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021년 5월 전시회에서 포즈를 취한 유수레 화가. 수레 아트 갤러리는 2022년 봄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첫 한인 아트갤러리와 뜻하지 않은 이별

첫 한인 갤러리, 수레 아트갤러리 5월 문닫아
라이 소재 집에서 작업실 겸 거실을 전시장으로 활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12년간 한인들이 목마른 예술 감성을 길러 내왔던 샘 같은 수레 아트갤러리가 문을 닫는다. 그 마지막을 담기 위해 뉴햄프셔로 차를

몰았다. 12년만에 첫 방문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뜻하지 않게 이뤄지는 게 한 둘이 아니다. 뉴햄프셔 바닷가 동네, 라이(Rye, NH), 직

접 가보고서야 그곳이 포츠머스의 웨스트위스 호텔에서 불과 몇 마일밖에 안되는 곳임을 알았다. 한국의 주권을 일본에 내주게 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그 호텔이 웨스트위스다. 한국인이자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인식된 포츠머스, 그 근처를 스쳐 지나가보지도 못했고, 그 조약의 의미도 가물 가물 하지만 포츠머스란 >>6면으로 계속

2022 NE 글짓기 대회 수상작 (관련 기사 9, 11, 12, 14면)

팩스로비드로 코로나 치료 후 재감염 가능성 높아

연방정부 팩스로비드 리바운드 경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질병통제센터는 24일 팩스로비드로 완치된 코로나 환자들은 재감염(rebound)을 경험할 수 있으며 회복 후 2-8일 후 다시 양성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팩스로비드를 사용했던 환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재감염 경험을 공유한 지 한달 만에 나온 것이다.

질병통제센터는 이 같은 경고와 동시에 고위험 합병증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팩스로비드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증상이 재발병한 사람들의 경우 최소한 5일간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CDC 리바운드가 발생해 증상이 시작된 날부터 10일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질병통제센터는 최근 팩스로비드 리바운드에 대한 연구를 인용해 이처럼 밝히고 두 차례 백신 및 부스터샷을 접종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 코리아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시민협회 정치인턴 만찬 6월 11일 대면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정치인턴 장학생을 위한 특별모금행사를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뉴튼시에 위치한 보스톤 매리어트 뉴튼 호텔(2345 Commonwealth Ave, Newton, MA)에서 6월 11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개최한다.

이날 특별 모금행사에는 미셸 우(Michelle Wu)보스톤 시장과 바나하워드(Vanna Howard)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이 기조연사로 초청된다. 시민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총경의 선발전 고교 및 대학생 인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미셸 우 보스톤시장, 태키 찬 주하원의원 사무실, 소냐 창-디에즈 주상원의원, 투누엔 우스터 시의원 사무실에 배정해 여름방학동안 인턴으로 활동하게 한다.

시민협회는 올해 소피 박 사무총

장을 비롯 2세 및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꾸려 정치인턴 행사 및 각종 시민협회 행사를 맡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양미아 회장은 “저희 시민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미주 한인이세, 차세대 젊은이들이 미국정치와 공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2020년 코로나로 행사를 취소하고 2021년에는 줌으로 개최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오다 3년만에 다시 대면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성인의 경우 \$100이며 학생은 \$60이다.

행사관련 문의는 newengland-kac@gmail.com로 할 수 있다. 또는 이벤트브라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22 해외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이한결 보스톤지역 우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은희 평통간사,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가 5월 22일 개최한 2022 해외청소년 통일골든벨 퀴즈대회에서 이한결 학생이 대상을, 조다연, 재김 학생이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오은희 간사의 영어 및 한국어 사회로 줌과 카훿을 통해 개최된 이번 퀴즈 대회는 객관식, 주관식, OX 퀴

즈 총 45문제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풀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뉴잉글랜드 지역(MA, VT, NH, RI, CT, Maine) 초, 중, 고교 한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근대사를 통해 정체성 확립 및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마련됐다.

25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었던 온라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한결 학생에는 상금 \$300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다연 재김 학생에게는 상금 각 \$200이 수여됐으며 우수상 수상자인 국강민, 김예준, 김정현 학생에는 \$100이 주어졌다. 또한 장려상 허정원, 이루원, 박예지, 허인영 학생에게 \$50이 그밖에 참여한 학생 전원에게 \$20 아마존 기프트카드가 주어졌다.

보스톤 평통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Galbi (beef short ribs)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3일부터 한국 입국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24시간 이내 검사결과 제출 백신접종 보호자와 입국하는 12세 이하 격리면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23일(한국시간)부터 한국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키로 했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하는 6-11세의 어린이의 격리를 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도 인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단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

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인정은 입국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 국가들이 PCR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추세이며, 미국에서 입국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는 CVS, 월그린 등에서 예약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PCR을 비롯 신속항원검사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보스톤 시는 예약없이도 무료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www.boston.gov/government/cabinets/boston-public-health-commission/covid-19-testing-sites#mobile-testing-sites>)



그러나 한국에서 방문하는 여행자 들이나 보험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CVS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120, PCR의 경우 \$149를 부과한다. 최근 보스톤을 방문했던 한 한국 거주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비용으로 \$150가량을 지급했으며 총 검

사 비용으로만 거의 \$300가까운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이외에 입국 관련 격리면제 규정도 6월 1일부터 완화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한 보호자와 입국하는 6~11세 어린이의 격리를 면제하고, 12~17세 청소년은 백신을 2차까지만 맞아도 격리를 면제한다.

▶▶2면에 이어서

박찬모 청년분과 부위원장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이고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은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전하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대회 총평을 통해 전했다.

공동 준비위원장인 고인수 교육분과 위원장은 오은희 간사와, 김도윤 부회장, 허훈 청년분과 위원장, 박찬모 청년분과 부위원장의 수고에 감사하며 참가한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모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잊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한결(10학년, 렉싱턴), 조다연(10학년, 렉싱턴)학생은 보스톤협의회 골든벨 우승자 자격으로 6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 미주지역 통일 골든벨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수상자 명단
대상- 이한결
최우수상- 조다연, 잭김
우수상-국강민, 김예준, 김정현
장려상-허정원, 이루원, 박예지, 허인영

bostonkorean@hotmail.com

헝소리 나는 기름값, 평균 33센트 올라 미평균 \$4.7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평균 가솔린 가격이 지난 2주동안 평균 33센트 올라 전국 평균 \$4.71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상당수 갤론당 \$4.80을 넘긴 곳

이 많다. 업계 전문가인 애널리스트 트릴비 루텐버그는 가격 상승에 대해 원유의 상승과 가솔린 공급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 같은 평균 가솔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1 상승한 수치다. 미 전역에서 가장 가솔린 가격이 높은 곳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으로 갤론당 \$6.20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오클라호마 털사로 \$3.92였다. 전국적으로 디젤 가격은 9센트 인상된 갤론당 \$5.66이었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2022년도 NE 글짓기-손글씨 대회 시상식 가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22일 오후 온라인으로 뉴잉글랜드지역 글짓기 대회 및 예쁜 손글씨대회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김소희 총무의 사회와 함께 시작된 1부 시상식 행사에서 보스턴 총영사관 홍순복 부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 시상식

에 참가하여 상을 수여하게 되는 학생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글짓기-손글씨 대회를 통해 ‘한글의 중요성’ 과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상을 받는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고 전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김선미 총회장은 “심사를 맡아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는 동안 내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이 많았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진솔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니 그 어느 것보다 마음에 와 닿아 감동을 주었다.” 고 말하고 “이번 대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큰 발전을 이루었고 거기에 더하여 다른 학생들이 쓴 글을 들어보는 시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고 말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는 이번 대회 수상자 모두를 한명 한명 호명하며 온라인으로 상장을 수여했다.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상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를 보내 축하했다.

시상식 후 손글씨-고학년 부문의 류하은(북부보스턴) 학생의 동시 낭송을 시작으로 글짓기-저학년 부문 공동 전체 대상을 수상한 노진(뉴잉글랜드), 장건(뉴잉글랜드) 학생의 글과 고학년 부문 전체 대상을 수상한 이혜린(뉴잉글랜드) 학생의 미소와 감동이 넘치는 글 낭독이 이어지며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모든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유세찬 보조교사가 제작한 참가자 사진 및 출판작품 동영상 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 17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참가자인 김예린(뉴잉글랜드), 이샘(내슈아 한마음) 두 학생이 ‘

오인희 선배 후원인 상’ 을 받았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오인희 선배는 이날 “2012년에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를 졸업했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상을 받는 두 학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고학년 전체대상 분야 심사를 맡았던 장명술 보스턴코리아대표는 심사위원을 대표해 “이번 글짓기 대회를 보면서 2세대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표현력과 어휘력, 그리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었다. 어떤 글들은 호흡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갔을 정도로 흥미로운 글이 많아 심사위원들께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짓기 대회를 위해 진행과 감독 및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참가 학생여러분 부모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오늘 상을 받는 학생들 모두 축하한다.” 고 심사평을 대신했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피터 김 부동산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동해-독도 오류표기 바로잡기 2세대들이 나서야

반크 박기태 단장 초청 <독도와 21세기 독립운동> 강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 일, 이사장 오인식)는 22일 오후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 인 반크 박기태 단장을 초청, 세계 각국에서 독도와 동해 관련 잘못된 표기 바로잡기 노력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글짓기대회 및 예쁜손글씨대회에 이어 2부 순서로 '독도와 21세기 독립운동'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강연회는 김소희 총무의 박기태 단장 소개로 시작됐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2세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된 독도 및 동해표기 문제를 21세기 독립운동으로 연계하여 강연을 시작했

다. '독도와 21세기의 독립운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골든벨 문제 형식으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반크가 각 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및 정부의 웹사이트에 잘못 기재된 한국의 역사와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례들과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위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 단장은 "뉴잉글랜드 2세대도 각자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와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잘못 기재된 한국의 역사는 물론 동해 표기, 일본 땅으로 표기된 독도 등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박 단장은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인 대한민국이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와 일본 및 중국의 역사를 혼동하고 있음은 물론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등 많은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직접 이메일을 보내어 시정을 요청하거나 반크에 알려주어 잘못된 부분을 함께 고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강연회는 외교부와 보스톤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제 2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공모전 행사를 대비한 사전 준비로 개최됐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의 이번 강연회에 이어 '제 2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공모전'을 개최해 6월 말 마감할 계획이다. 여름방학 동안 참가자들은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여 참가 연령에 따라 그림일기, 포스터, 에세이와 발표 부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9월에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외교부와 보스톤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제 2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공모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로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신규 주택 거래 팬데믹 이래 최대폭 감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백 기자 = 급상승한 모기지 금리와 급등한 가격 더블 펀치를 맞은 4월 신규 주택 거래수가 9년만에 최저로 주저앉았다.

신규 단독주택의 4월 판매 수는 연 환산 59만 1천 주택으로 16.6%가 감소했으며 2020년 4월 이래 가장 부진한 판매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기대 거래수치인 7만9천주택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치다

주택 구입은 급격하게 인상되는 모기지 금리와 가격상승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30년 모기지 금리는 5.25%로 2021년에 비해 약 3%가량 올랐다.

로버트프리네이비페더럴크레딧유니온의 경제학자는 "4월의 신규 주택판매 부진의 수치는 높은 건축비, 공급망 단절, 높은 모기지 금리 등의 요인이 구매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주택 건축업체들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또한 건축비 인상과 수요 감소로 인해 5월에 대한 주택 건설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인구조사국과 HUD의 신축 주택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주택 가격은 19.6%가 오른 \$450,600이었다.

현재의 판매 페이스에 따르면 모든 매물을 판매하기까지는 9개월이 걸리는데 이는 3월의 6.9개월 그리고 1년 전의 4.7개월에 비해 현저하게 느린 것이다.

신규 주택 판매는 미국 전역에서 하락했으며 미국 남부에서는 19.8%가 미국 서부에서는 15.1%가 하락했다.

hsb@bostonkorea.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Source: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 category, % retail value share, 2016-2019 data, CH2020 edition

가족들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족사이에도 필요했던 거리, 이제 면역력으로 만나세요.

우리사이를 지키는 면역력 정관장

이벤트 기간 5월 15일 까지



이벤트 1

달임액 3종, 파우치류 Mix & Match

화애락 진/본, 홍천옹, 천녹톤, 톤 2종

1개 구입시 + 이너제틱 20포 증정
3개 구입시 + 이너제틱 60포 증정

이벤트 2

자녀용제품 (홍이장군, 아이패스)

1개 구입시 + 두번째 구입제품 50% 할인

이벤트 3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증정

2X Event

첫 주 (4월22일~29일)에 구입하시는 분들께 **포인트를 2배** 적립해 드립니다!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첫 한인 아트갤러리와 뜻하지 않은 이별

▶▶1면에 이어서

이름만큼은 익숙할 것이다. 1900년 초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전혀 모르고 뜻하지 않았던 포츠머스에서 결정됐다.

그 옆 바닷가 동네 라이(Rye, NH)는 하물며 어떻게 알 수 있었겠나. 해안가로는 제법 근사한 집이 많지만 바닷가와 좀 떨어진 곳의 집들은 뉴햄프셔의 커다란 뜰을 가진 뉴햄프셔의 전형적인 집과 달리 붙어있고 작았다.

이 은둔의 타운은 어느새가 한인들의 귀에 익숙해졌다. 수레 아트갤러리가 발음도 이름도 낯설었던 동네 라이를 한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인식을 낳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레아트 갤러리는 새가모어 길가의 작은 스트립 몰에 위치했다. 같은 건물 1층 왼쪽에는 세탁소가 있고 갤러리 1층에는 조금 갤러리와만 느낌이 변호사 조셉 라이조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과거의 1층 또한 갤러리였지만 현재의 2층 갤러리로 다 이어트를 하게 됐다.

이 길가의 스트립 몰 2층으로 통하는 계단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이제야 갤러리에 당도한 느낌을 갖는다. 22일 토요일 오후 중반, 유수레 화가는 분주해 보였다. 찾아온 손님들, 그림 사진 촬영 등이 지속됐다. 갤러리를 비워야 하는 5월말까지는 10일 채 안남았으니 마음이 더 분주할지도 모른다.

갤러리를 접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유작가는 “화가로서 비즈니스에 신경 쓰는 게 힘들었다. 크레딧 카드 사용법을 배우는데도 한참 걸렸다. 더구나 다른 작가들의 전시를 하다보니

애로 사항이 많았다.” 고 말했다.

더구나 팬데믹 이후 렌트비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힘들었다. 12년전 갤러리를 시작하면서 돈을 벌려는 욕심이 없었다. 기를 쓰고 담벼도 힘든 세상이니 비즈니스에 관심없는 화가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돈을 가져다 줄리 만무하다.

유작가는 “갤러리가 항상 적자였다. 갤러리에서 도움된 것이 없었다. “고 털어놨다. 이곳에서 나는 적자는 학생지도를 통해서 메꿔가는 형식이었으니 팬데믹 이후 이를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날 수 있겠다 싶었다.

갤러리를 유지하자는 후원자도 있었다. 유작가는 “돈 있는 컬렉터 한 분이 갤러리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선불리 답을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도 완전치 않은데다 이제 자신의 작품에 몰두하고 싶은 욕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작품에는 강한 ‘욕심’ 을 거두지 못하는 게 느껴졌다.

유작가는 첫 네번의 전시회를 마칠 때까지 아까워서 그림을 팔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의 그림이 남아있다. “처음 (작품을) 팔았을 때 작품을 팔고 몸살이 났다. 작품을 누가 가져가면 슬프다.” 고 표현할 정도다. 그러나 창고에 쌓여 갇히는 것보다 “작품이 좋아하는 사람 집에 걸려서 숨을 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선 작품을 판매하는 게 한결 수월해 졌다. 작품에 시간을 쓰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 결혼도 포기했다.

결혼도 접은 그가 갤러리를 접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남은 제 인생을 제 작품에 몰두를 하고 싶다” 이라고 유작가는 설명했다. “체력이 더 없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남은 여생을 좋은 작품을 정말 제 맘에 드는 작품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유작가는 작년부터 귀향하는 느낌으로 달동네를 다시 그리고 있다. “화폭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스케치 해놓고 컴퓨터에 작업해 놓는 것은 마쳤다. 고향을 담은 느낌을 스케치 해놓는 것이며 한국의 달동네는 아닐 것” 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서두르지 않는다. 유작가는 “1년 반 2년 안에는 달동네 작품을 발표를 하지 않으려 하며 신중하게 그리고 있다” 고 밝혔다.

달동네는 한국에서 화가로서 명성과 돈을 한꺼번에 가져다주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했던 작품시리즈다. 그림을 가르쳐주셨던 아버지로 부터 버림 받은 우울했던 어린시절 감성이 그림에 담겼다. 그는 김현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재개발로) 집을 잃은 그 사람들이 꿈마저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풍요를 알게 된 그의 삶에서 달동네의 감성은 끊임없는 이질감이었고 미국을 향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미국에 오자마자 그림이 확 변했다. 뉴멕시코 여행을 하는데 그곳의 인상의 버밀리온 칼라의 인상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어두운 색에서 여기서는 아주 따뜻한 색 드림 버드 시리즈로 바뀌었다.

뉴햄프셔에서 다시 한번 그는 그림의 톤을 바꿨다. 뉴햄프셔 바닷가



유수레 화가

영향을 받아서 블루 톤으로 작업을 해 박물관 (Coolidge Center for the Art)에 전시하며 큰 히트를 쳤다. 뉴햄프셔 언론으로부터 호평도 받았다. 이민자로서 인정해 주고 인기도 있었지만 한국에 활동하던 것 만큼 만족하지 못했고 차별도 느꼈다.

유작가는 “갤러리를 해서 제 작품에 대한 자유를 갖도록 해주고 싶어서 수레 아트 갤러리를 개관했다.” 고 갤러리를 연 이유를 말했다. 처음에는 미국작가들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하다 이제 한국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 했고 이제는 그마저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유작가는 라이에 계속 남는다. 뉴햄프셔 바다와 떨어지기 싫고 “작품환경에 가장 적합한 곳” 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갤러리에서 3분여 떨어진 집을 작업실 겸 전시장으로 쓰며 한인들과 계속 만날 계획이다. “변한 것은 없다. 그저 장소만 옮겼고 일년에 두차례 정도 거실에서 전시도 할 계획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유작가의 장래 꿈은 사는 집을 죽

어서도 수레 작업 뮤지엄으로 남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남겨놓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없어도 그림은 남는다. 작아도 남겨놓고 가는 것이 꿈” 이란다.

이번 취재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동행했다. 바닷가를 보여줄 셈이었다. 바닷가도 보고 이웃 포츠머스다 운타운 그리고 웨스트위스호텔도 둘러봤다. 포츠머스 조약도 설명했다. 안개가 짙은 바닷가와 호텔이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물으니 이구동성 수레아트갤러리라 답했다. 한국적 정체성과 예술적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 아이들은 이제 갤러리를 더 이상 방문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한인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상실이다.

갤러리는 가도 그의 작품만은 그곳에서 만나고 싶다. 수레작업뮤지엄도 전혀 뜻하지 않는 누군가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곳에서는 왠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

editor@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팩스로비드로 코로나 치료후 재감염 가능성 높아

▶▶1면에 이어서

한 환자들에게서도 이 같은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스톤과 뉴욕에서 서로 다른 연구팀의 소규모 연구로 이뤄진 이번 리바운드 관련 연구에서 재감염이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징후가 발견됐다. 연구진들은 일부 재감염 환자들의 경우 바이러스 수치가 주위의 접촉자들을 감염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높은 것도 확인했다.

재감염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다. 67세의 팩스로비드를 모두 복용한 무증상의 남성은 6개월된 아기를 감염시켰다.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마이클 차니스 박사는 “이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또 다른 증거세를 경험하고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23일 발표된 이번 연구는 10명의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한 차례 부스터샷을 맞은 31세에서 71세까지 감염 환자들의 감염을 분석해서 이뤄졌다.

팩스로비드는 고위험 환자군들에게 첫 증상이 일어났을 때 처방하는 치료제로 하루 3알씩 2차례 5일간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팩스로비드의 제조사인 화이자사가 지난 12월 비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2%의 환자가 재감염을 경험했다. 플라시보 시약을 복용한 환자에서선 1.5%가 재감염이 발생했다.

차니스 박사의 연구는 화이자 데이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

니지만 리바운드가 훨씬 일반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환자들은 팩스로비드 복용을 완료한 후 3-8일 이후부터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3-10일간 지속됐다.

재발병한 환자들에게 항원검사를 한 결과 평균 6일간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팩스로비드 복용전 최초 감염됐을 때부터 18일까지 양성반응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차니스 연구진들이 팩스로비드를 복용하지 않은 1000명의 미농구협회(NBA) 소속 코로나 환자를 관찰한 결과 아무도 코로나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저자인 데이비드 호 컬럼비아대 교수는 “화이자에서 관찰했던 자료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NBA 데이터를 인용했다” 고 밝혔다.

두번째 연구는 보스톤의 연구진들이 팩스로비드를 복용하고 재감염이 된 7명의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3명의 감염자들의 바이러스가 9일까지 지속됐다. 한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가 팩스로비드를 30알 모두 복용한 후 11일 동안 지속됐다.

MGH감염병 학자인 마크 시드너 박사는 “이는 이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재감염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염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이러스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는 진정 독특한 현상이다” 라



고 덧붙였다. 시드너 박사는 바이러스가 팩스로비드에 저항을 키우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시드너 박사와 다른 연구진들은 이 같은 재감염 현상으로 볼 때 팩스로비드를 더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치료약을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CDC의 경고는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주고 있지 않다. CDC는 경고와 더불어 증상이 재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재감염은 “백신 접종 및 팩스로비드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인들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고

간주했다.

연방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4일까지 668,000팩스로비드가 처방됐으며 재감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의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약이었다.

그러나 시드너 박사는 재감염 환자들의 바이러스 수준이 극히 높은 것을 바탕으로 팩스로비드에 이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드너 박사는 브리감앤우민스 병원, 브로드인스티튜, 라곤인스티튜, MGH, 하버드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팀

은 재감염된 사람들의 면역체계를 반응을 보고 팩스로비드를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베이스 라엘병원 감염과 의사인 캐스린 스티븐슨 박사 또한 팩스로비드 연구를 진행한다. 스티븐슨 박사는 새롭게 팩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들을 2-3주동안 지켜보면서 리바운드 관련 정보를 탐색할 계획이다.

그녀는 여러 연구가 도움이 되겠지만 대규모의 연구가 빨리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를 제약회사인 화이자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도시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3분 운동으로 30분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요가하면 흔히들 정적인 스트레칭이나 앉아서 하는 명상, 혹은 뻣뻣한 사람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기이한 동작들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줌라이브 수업은 그런 편견을 깨고 초보자들이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재미있는 유산소 운동과 몸의 근력과 코어힘을 키우는 필라테스 운동을 함께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런 의도에서 최근 영어 채널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3분 SONG WORKOUT도 짧은 시간 신나게 음악과 함께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 기간 체중감량을 원하시는 분들, 바쁜 하루 짧고 효과적으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음악과 따라하다보면 3분 순삭!

유튜브 검색창에서 제 영어 유튜브채널 'yoga.song.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Becky G., 3min Total Body Song Workout for Weight Loss' 편을 찾아 꼭 따라해보세요.

1. SIDE BODY STRETCH - 옆구리 슬림효과, 허리통증 완화

1단계 선자세에서 한팔을 길게 머리위로 뻗어 옆구리를 스트레칭해줍니다.

2단계 가슴이 바닥이 아닌 정면을 보도록어



개를 편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길게 뻗어주세요.

3단계 반대 방향도 번갈아가며 2회씩 진행합니다.

2. ARM SWINGS - 팔뚝살 제거, 여러여리 직각어깨 만들기

1단계 두발을 좀더 멀리 벌려 서고 양팔을 어깨 높이로 벌리며 양옆으로 뻗어줍니다.

2단계 무지개를 그린다고 생각하며 오른손으로 반원그리며 왼손쪽으로 가져갑니다.

3단계 같은 방향으로 두번 해주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며 반복해주세요.

TIP! 팔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강하게 밖으로 밀어내줄 수록 팔 토닝 효과가 커 집니다.



3. SIDE LUNGE - 하체슬림, 힙업효과

1단계 앞의 동작이 끝나면 바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한 무릎을 접어 사이드 런지자세를 이어갑니다.

2단계 좀더 효과적인 팔뚝살 정리를 위해 손도 위아래로 뻗어주세요.

3단계 어깨 가동범위안에서 손을 위아래에서 모아주고 반대 무릎을 접어 계속해서 사이드 런지동작을 이어갑니다.

TIP! 손 끝이 바닥에 안 닿아도 상관없어요. 단 무릎을 발가락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BALLET SQUAT - 안벅지 슬림효과, 자세교정

1단계 와이드 스퀴트 동작에서 어깨를 좀더 펴고 상체를 꼳꼳하게 펴주는 동작입니다.

2단계 발레리나를 연상하며 척추를 곧게 펴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 앉아주세요.



3단계 무릎을 펼 때에는 양팔을 옆으로 벌려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TIP! 무릎과 두번째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스쿼트 하셔야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2022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1

[고학년 부문 전체 대상 수상작] **꽃(삶을 비춰주는 꽃)**

10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혜린**



꽃! 꽃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된 것이 몇 년만 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늘 글짓기 주제로 나왔던 것이 바로 '꽃' 이었다. 그때는 '꽃' 이라는 단어를 보면 장미, 개나리, 튜립, 무궁화, 빨강, 노랑, 향기, 나비 등등 그런 꽃이 담긴 풍경들이 떠올랐고 나는 그런 풍경에 대한 글을 썼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의 나에게 '꽃' 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꽃' 은 널리 쉽게 사용되고 한 음절의 짧은 소리로 단순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느낌과 의미를 전달하는 특별한 힘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한다.
 꽃, 뽀내지 않아도 눈길을 끌고, 소리내지 않아도 관심을 부르는 신비로운 꽃.
 봄나들이 나온 아기의 아장아장 작은 발걸음을 반겨주는 개나리 꽃, 처음으로 봄을 만나는 아기에 게 온통 노란 개나리 꽃은 신기한 모험이다. 성공적인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배우나 연주자에게 전하는 꽃, 혹은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건네는 꽃, 그 꽃은 축하를 안겨주는 기쁨이다. 개업을 축하하는 커다란 화환이나 인생의 새 막을 여는 졸업생에게 선물하는 멋진 꽃다발, 그 꽃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한 희망을 뜻한다. 그리고 아기를 갓 낳은 엄마에게 선물하는 꽃은 축복 뿐 아니라 사랑까지 담겨 있어서 특별한 행복을 의미한다. 또한 10주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하는 꽃은 함께 해온 세월을 축하하고 미래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상징한다. 아버님 직접 만들어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주는 색종이 카네이션과 스승의 날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꽃다발. 그 꽃은 존경심으로 가득한 고마움이다. 병 문안을 갈 때 아픈이에게 가져가는 꽃은 위로를 뜻하고, 울적한 장례식을 꾸미는 꽃은 슬픔이기도 하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묘지로 가져가는 꽃은 그리움이며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는 아쉬움이다. 그리고 나이 든 백발 할머니가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꺼낸 책갈피 사이의 마른 꽃잎은 오랜 옛날 어여쁜 아가씨의 소중한 추억이다.
 이렇게 나에게 '꽃' 은 더 이상 나비와 함께 떠오르는 단순히 예쁜 튜립이나 빨간 장미가 아니다. 초등학교생의 눈으로 바라봤던 꽃은 그저 예쁘고 곱고 향기로웠었다. 그래서 갖고 싶었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자주 그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꽃' 은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겪으며 꽃의 새로운 의미를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저학년 부문 전체 대상(공동) 수상작] **내가 좋아하는 음식 (지글지글 스테이크)**

장 건(4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음~ 고소한 냄새, 그건! 바로 스테이크!!
 저는 스테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스테이크는 고소하고, 맛있고, 조금 짭조름해요. 특히 스테이크에는 단백질도 많고 영양소도 많아요. 저는 특히, 스테이크 굽는 냄새를 정말 좋아해요. 구울 때 나는 냄새가 제가 10인분을 먹을 수 있을거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스테이크를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스테이크를 너무 작게 썰어 먹으면 육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미디움레어로 많이 굽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육즙이 많고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리고 고기를 다 먹으면 핏물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육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비벼 먹어요. 아참! 구운 야채들도 함께 먹는 것도 잊지 말구요.
 그리고 김치 한 조각 탁~! 올리면 짹짹 놀랄 맛! 아름다운 맛! 저는 그 순간 제가 녹아버릴 것만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스테이크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우

리 가족이 모두 함께 먹기 때문이에요. 아빠나, 엄마가 바쁘셔서 한명이라도 없으면 스테이크를 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함께 요리하고 먹게 되는 스테이크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바로...짜파게티! 짜파게티는 모두가 아는 노래와 음식이에요.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꼭 맛보세요!

[저학년 부문 전체 대상(공동) 수상작] **내가 좋아하는 음식 (비빔밥)**

노 윤(4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비빔밥이에요. 다양한 색깔하고 음악을 만드는 맛, 이것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자랑스럽게 노래를 불러요. 큰 파도 같이 비빔밥이 조금씩 커져요. 큰 소리로 외치고 걸어요. 다른 음식들을 밀면서 가요. "나는 비빔밥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빔밥은 무지개예요. 다양한 색깔들을 전시해요. 가장 먹음직스러운 빛에서 밝게 빛나요. 비빔밥을 볼 때마다 입에 침이 고여요. 긴 겨울 잠을 잔 꿈 같이.
 비빔밥은 마법사의 작품이에요. 정성껏 부드

럽게 만들어진 비빔밥. 내가 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아요. 비빔밥은 채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에 더 좋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비빔밥이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서 좋아요. 사람들이 비빔밥이라는 말을 꺼내면, "한국의 대표 음식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비빔밥은 맛있고 다양해요. 숨어 있는 행복이에요. 비빔밥은 신기하고, 다양하고, 맛있고, 행복해요. 한국의 음식, 맛있는 음식, 우리 음식: 비빔밥~!

[K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물놀이**

정주은(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1. 저는 물놀이를 좋아 합니다.
- 2. 물놀이는 재미 있어요.

- 3. 물놀이를 하면 옷이 다 젖어요.
- 4. 물놀이를 하면 많이 침범 걸릴 수 있어요.

[1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자전거**

이유진(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나는 세살에 처음 자전거를 탔어요. 제 전 자전거는 하얀색 네발 자전거였어요. >>11면으로 계속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영혼의 쉼터
 2세, 3세들을 위한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꿈의 집을 Compass Coming Soon 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mpass.com에서는 Compass Coming Soon을 통하여 마켓에 곧 나올 매물들의 정보를 미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당사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들은 미리 선별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ompass Coming Soon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atch the first glimp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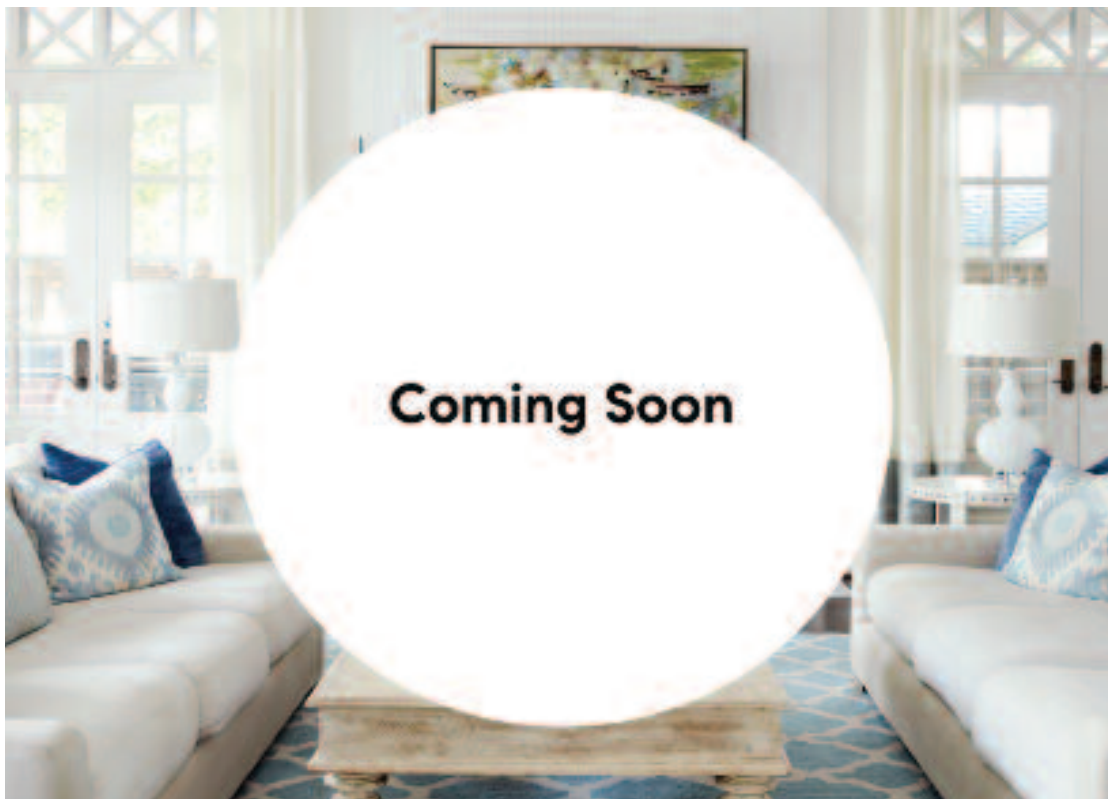
Compass Coming Soon 목록의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ompass Coming Soon 으로 시작하므로, 다른 구매자보다 먼저 검색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e the full market

Compass Coming Soon 목록은 한곳 Compass.com에서만 볼 수 있으므로, 항상 당사 사이트에서 시장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Streamline your search

Compass.com의 저장된 검색을 사용하여 꿈의 집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선호하는 목록 기준을 쉽게 설정하고 새로운 Compass Coming Soon 목록이 게시될 때마다 알림을 받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Compass 어카운트 셋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
COMING SOON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2022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2

▶▶8면에 이어서
어요.

처음 배울때는 비틀비틀 했지만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금방 배울 수 있었어요. 일곱살 생일에는 훨씬 크고 자물쇠도 달린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 자전거 거였어요. 이 자전거와 가장 좋았던 추억은 아빠랑 동네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탄 거예요.

[2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봄

봄이 왔다.
봄이 예쁜 꽃을 피웠다. 예쁜 꽃에 나비가 왔다.
그런데 그 꽃을 토끼가 먹었다. 슬펐지만 토끼도 귀엽다.
그리고 봄을 따뜻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이 불면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샴푸같은 좋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싶다.
그리구 내가 봄이 가장 좋은 이유에는 꽃도 많지

또 작년에는 캠핑을 가서 친구들과 숲 속 길을 따라 씩씩 달린적도 있어요.

저는 커서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케이크까지 만들고 싶어요. 그럴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서 힘을 키우고 엄마와 동생에게도 자전거를 가르쳐 줘서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 휘(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만, 곤충도 많아서다. 땅에서 지렁이도 보고, 그리고 한국이름은 모르지만 '센터피' 라는 곤충도 잡아서 보고 통에 집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언스를 많이 할 수 있다.

또, 봄은 새들도 많이 노래하고 딸기도 딸 수 있고, 해님도 따뜻하고 노랑색 꽃이랑 분홍색 꽃이 진짜 많다. 그래서 더 예쁜것 같다.

예쁜 봄아, 빨리 가지말고 같이 놀자!

[3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저는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제 미국 선생님, 체육 선생님, 보호 선생님 등 좋아해요. 근데 저는 다른 선생님보다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주민정 선생님이예요. 저는 주민정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제 첫째 이유는 저는 주민정 선생님의 웃긴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주민정 선생님은 우리의 수업 전에, 동안, 그리고 쉬는 시간 때 엄청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알려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선생님의 집의 옛날 주인은 MIT에서 일하던 아저씨의 집이었어요! 이런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해요!

조민수(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맛 보고 싶어요! 주민정 선생님 참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듣고 싶어요!

제 둘째 이유는 주민정 선생님은 어려운 부분들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우리가 잘 이해했는지 다시 알려줘요. 주민정 선생님이 있으면 모든 어려운 글이나 문제가 누워서 떡 먹기가 돼요. 우리 수업은 9:00에 시작하는데 주민정 선생님은 8:30에 줌을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일찍 들어와서 주민정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민정 선생님은 쉬는 시간때 어떤 동영상 보여줘요. 그 동영상들은 우리의 공부를 돕는 자료들이 있고, 그 동영상들은 재미있어요!

주민정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4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번도 바다에서 잡은 것을 먹어 본 적 있나요?
저는 먹어봤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산낙지가 제일 맛있어요. 미국에서는 산낙지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출장 갈때 우리는 아빠를 한국으로 같이 갔어요.
한국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남해였어요. 저는 남해에서 낙지랑 해산물들 거의 맨날 먹었어요. 언젠가는 엄마가 낙지를 안 사주어 갯벌에 가서 낙지를 잡았어요. 낙지는 손에 열었을때, 도망을 가려고 꿈틀꿈틀 거렸어요. 낙지는 도망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할머니한테 탕탕 썰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낙지를 많이 좋아하지만 다른 해산물들도 많이 좋아해요. 예를 들어 회, 아니면 해삼도 좋아해요. 회는 부드럽고 식감도 좋고 해삼은 꼬들꼬들해요. 셋이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회는 고

오하연(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해삼도 똑같해요. 낙지는 고추장 아니면 기름 짬에 찍어먹으면 맛이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해삼물이 너무 많아서 다 생각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내 보았어요.

저는 멍개랑 개불이 너무 싫어요. 해삼보다 더 징그러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회, 낙지, 아니면 해삼은 너무 이 있어요. 낙지는 앞에 달라 붙어서 재미있어요. 해삼은 언젠가는 너무 딱딱할 수 있어요. 딱딱해서 씹는 재미도 있어요. 저는 구운 물고기도 좋아요. 짭짤해서 맛있고 껍질은 좀 바삭해요. 속은 부드러운데요.

물고기는 찜서 밥이랑 먹어요. 밥이랑 먹으면 맛이 있어요.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저는 그중에서 해산물이 제일 좋아요.

[5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한국학교

저는 6년 동안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에 다녀요. 나는 엄마하고 아빠처럼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모르면 조금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는데 내가 한국어를 모르면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될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배우요. 역사를 배우는게 재미있어요. 한국의 힘들었던 역사도 배우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워요. 선생님께서 역사를 가르쳐주시면 신기해서 저는 수업을 잘 들어요. 한국학교에서는 표현들과 문법을 배우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 한국어를 쓸 때 도움이 돼요. 수업때마다 다른 문법들을 배워서 엄마, 아빠와 한국어를 쓰는게 더 재미있고 쉬워요. 그래서 수업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오늘은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궁금해져요.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는게 도움이 많이 돼서 작년보다는 한국어를 더 잘 쓸수 있으니 행복해요. 올해는 내 한국학교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예요. 그래서 내 한국어를 쓰는 방법이 더 늘려줬어요. 우리 한국학교는 공부만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학교는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많

은 전통놀이들을 해요. 제기차기, 윷놀이, 팽이 돌리기, 떡 만들기 등이 있어요. 이 놀이들을 하면 옛날에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놀이들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세배를 할 때예요. 한복을 입고 신부님께 세배를 하면 신부님이 세뱃돈을 줘요. 세배를 하는게 좋아하는 이유는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 신부님이 돈을 줘서 세배를 하는게 좋아요. 저 혼자서 하면 조금 부끄러워서 못 할텐데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하니 즐거워요. 이런 설날 행사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설날행사 말고도 다른 즐거운 행사들도 있지만 이 설날행사가 제일 재미있어요.

한국학교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년 전에는 한국학교가 끝난 다음에 모두들이랑 놀 수 있어서 매일 한국학교에 오는게 좋아요. 나는 우리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선생님들도 다정하시고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시는 덕분에 나는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집에서 수업을 하니깐 언젠가는 다시 성당에서 한국학교 수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인우(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6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은 시대와 장소

저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많은 곳을 가고 싶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때라든가, 전화기와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라든가. 하지만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을 골라야 했었다면, 나는 미래의 세상을 가고 싶어요.
미래로 가고 싶은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산다든지. 저는 또 자연, 지구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이상해졌는지, 그리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물고기와 육지동물이 멸종됐는지, 아니면 인류가 이런 문제들을 알아채고 지구를 살릴 수 있었는지.
지구의 상황을 보고 싶은 이유는 요즘 제 미

국학교에서 여러가지 동영상 보게 됐어요. 이 지구가 살아 있는 시간이 하루였다면, 현재 2초가 지났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2초 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었는지, 우리보다도 몇 시대 전부터 살아있었던 동물들이 우리의 발전으로 멸종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머신으로 현재로 돌아온 후, 온 세상에 제가 본 것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지구가 망하는지, 저는 미래의 아이들이 우리가 본 동물들,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타임머신을 통해 우리 세상을 지키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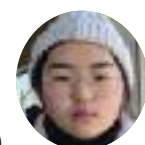
김주현(뉴잉글랜드 한국학교)

[7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우리 가족의 전통

세계의 많은 민족들은 전통을 뿌리 삼아 살아 영위합니다. 전통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뭉치곤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민족 당 하나씩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소문화해 들여다 보면, 마을별, 혹은 가족별로 각각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이렇

게 무수히 많은 전통들 중, 제게 유달리 애뜻하게 다가오는 저희 가족의 전통에 대해 말해 보자 합니다.
필자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희 가족은 설날마다 시골 외갓집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수탉의 울음소리에 기상해 만월이 밤하늘 꼭대기에 걸릴 때까지, 외갓집 친척 ▶▶12면으로 계속



신 솔(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



2022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3

▶▶11면에 이어서

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고 만두를 빚었던 기억은 아직까지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연시되는 설날 전통일지라도, 그 소중한 기억은 머나먼 타지에서 파스한 원동력과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필자의 가족이 4년 전 대한민국을 떠나왔을 때, 어머니께 '미국 가서도 설날 챙길거야?' 라며 어린 마음에 여쭙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무어라 대답하셨는지 이제는 회상할 수 없지만, 그 이듬해 설날은 간소하게나마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한참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제게, '전통이라는 옛 삶의 파편은 시원한 약수와도 같았습니다. 주마등처럼 과거의 설날들이 눈앞을 스쳐 갔고, 유구한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떡국을 후후 불어 나이를 더 먹었다는 선언을 하고, 둥그런 만월을 보며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설날 전통은 무형물이고, 성적을 올려주지도 친구를 사귀어 주지도 않았으나, 잠시 이방인의 애달픔을 달래 주었습니다.

비단 그 해 뿐만이 아니라, 햇수가 바뀔 때마다 점점 설날 전통은 저희 가족만의 방식으로 탈바꿈을 반복합니다. 이제 매년 음력 1월 1일이면 온 가족이 분주해집니다. 저희만의 저희가 지켜야 할 역사는, 전통의 이름을 갖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 저희 가족에게는 삶의 일부분이고, 쌓아올린 이야기이며, 이방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8학년 부문 공동 대상 수상작]
내가 존경하는 사람

해마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면 가족이나 친구가 내게 묻는 질문이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냐고. 그러니까 10년 넘게 반복해서 들어온 질문이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질문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답은 변해왔다. 내가 아주 어릴 적에는 모든 어린 아이들처럼 갖고 싶은 장난감이 많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비싼 카메라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요즘은 특별히 갖고 싶은 선물은 없다. 내 친구들은 생일이 다가올 때는 갖고 싶은 물건들을 줄줄 써 놓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나에게 말해준다. 하지만 나는 어떤 물건이 갖고 싶은 것이 아니다. 요즘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족과 함께 걱정없이 편히 쉬면서 즐겁게 보내는 휴식 시간이다.

우리 엄마는 주중이나 주말이나 쉴새없이 일을 하신다. 회사일도 너무 많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시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셔서 이리저리 늘 바쁜

게 지내신다. 몸이 아프셔도 병원에 가지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으면서 쉬지 않고 일만 하신다. 그런 점이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그런 엄마가 밉기까지 하다. 하지만 늦은 밤 또 아픈 어깨와 허리를 만지시며 얼굴을 찡그리시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엄마를 보면 엄마가 안스럽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일만 하시다가 건강을 크게 해치실까봐 걱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레고 블록도 비싼 게이밍 컴퓨터도 아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너무 많이 일하시는 우리 엄마와 함께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휴식 시간이다.

시간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아 그 시간을 엄마와 함께 그리고 엄마를 위해 쓰고 싶다.

그동안 엄마와 나누지 못한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지금 나는 그 무엇보다도



이준호(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어렸을 때처럼 장난치며 소리내어 웃기도 하면서 걱정없이 엄마와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선물 받고 싶다. 그래서 늘 지켜보시는 엄마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런 걱

정없이 나와 함께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다.

[8학년 부문 공동 대상 수상작]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이세라(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

"어머, 애, 너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와, 니 핸드폰 완전 좋아보인다!"

저는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신이 나서 얼굴 꽃이 활짝입니다. 남에게서 듣는 칭찬은 우울했던 마음을 달래주고 상처난 곳을 치료해 줍니다. 아무리 사소한 피드백이라도, 저는 남한테서 인정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다른 아님 '인정'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줄곳 제가 사춘기라고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춘기를 통해 멋진 어른이 될 상상을 하면 심장이 쿵쿵쿵 뛰지만, 이 사춘기라는 걸 통과하는데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사소한 일에 상처 받고, 남에 시선에 신경을 쓰는게 때로는 저를 힘들고 지치게 하더라고요. 마치 커다란 산을 등산하듯 영차 영차 버틸려고 힘써 보지만,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때 주저앉을 찰나 손을 내미러준 것은 다름 아닌 사소한 칭찬이었습니다. 시험을 잘보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똑똑하다는 칭찬, 할머니께서 예쁜 똥강아지라고 해주시는 따뜻한 칭찬, 부모님이 밴드 공연을 관람하신 후 해주신 칭찬,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한 마디이지만, 마치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달콤한 사랑을 준듯 저는 이 말 한마디로 행복해집니다. 참 단순하죠? 나이가 몇인데 칭찬받았다고 신나 하는 제가 어찌면 한심해 보일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남을 인

정해 주는 것 한 가지로 한사람 얼굴에 미소를 띠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칭찬은 충분히 가치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업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중 생각해 보자면 이 인구에 반 이상은 미성년자겠죠?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에 사정을 알 순 없지만,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청소년들은, 각자만의 사춘기를 이겨내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작은 선물을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선물은 다름 아닌 '인정과 응원' 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께서 모든 선물을 배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등교길이나 출근길에 남에게 사소한 칭찬을 남겨주세요. 마치 작은 선물을 주는 것 처럼요. 그럼 제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칭찬을 받으면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 때도 많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다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인정하는 모두가 됩시다!

▶▶13면으로 계속

유람 교회의 세디클 투어
www.journeve.co.kr

좋은사람들
www.journev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과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2022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4

▶▶12면에 이어서

[9학년 부문 공동 대상 수상작]

팬데믹이 저에게 끼친 좋은 영향

김예린(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작년 팬데믹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팬데믹 동안,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킥킥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없었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는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팬데믹이 조금 그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불편한 마스크와 병균에 대한 불안함은 다시 데려오고 싶지 않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온세상이 정지된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맨날, 매순간 달리고 있는 느낌으로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지니까, 제가 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저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전의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People Pleaser' 라고 말하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배려를 받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따라갔지만, 결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자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동안은 가족 외에 사람들은 못 만나게 되어서... 저는 저만의 마음을 맞추고 의견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쿨레레, 코바늘 뜨개질, 줄넘기 등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 봤지만, 제일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계속 할 것 같은 취미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취미들은 바로 유튜브 영상보면서 운동하기, 케 이팝 춤 따라하기, 그리고 요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이 남아도 이 활동들을 해보고 싶

은 마음이 없었는데, 팬데믹 동안 아주 큰 범위의 활동들을 해보면서, 이 취미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 주고, 스트레스 전환시키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하는 삶을 주말에만 살지 말고, 원하는 삶을 주말동안 계속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팬데믹 시간이 떠올라 졌습니다. 평소에는, 삶에서 쉴 틈이 별로 없어서,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직진하게 되는데, 코로나 동안 저의 일상생활과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식단을 더 건강하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동안 건강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간식 레시피를 많이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콜렛이나 과자보다는 과일 스무디, 오트밀 과자 등등을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정말로 성적이나 친구 관계 걱정없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없었는데, 나는 왜 그 시간을 더 잘 쓰지 않았지?' 라는 후회를 최근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을 더 하면, 제가 그때랑 비슷하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만족하게 해주는 취미를 찾는 과정과, 그 취미들을 제 삶에 포함하는 과정을 팬데믹 동안 벌써 겪어봐서, 이제는 제가 아예 지식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팬데믹 동안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고마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9학년 부문 공동 대상 수상작]

팬데믹의 추억

노 진(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주만이면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의 시작. 아무 예고 없이 저희는 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그 후로 약 일년 정도 동안은 다시 학교에 발도 디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일과 방과 후 일정들 때문에 힘들어서 다 취소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학교에 다시갈 날도 무한 연장되며 제 앞길은 조금씩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도 2년이 지나고 삶과 세상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온 오늘, 되돌아보면 팬데믹이 끼친 좋은 영향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팬데믹이 많은 추억을 남겨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팬데믹 때문에 아빠는 집에서 일하시고저와 제 동생도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학교' 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집에서 저희를 돌보아 주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몇 걸음만 걸으면 되는 거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가족 넷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같이 한 식탁 앞에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서부터 최근 관심있는 분야까지 다 털어 놓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주 생각이 납니다. 팬데믹 전에는 아침에 모두 나가는 시간도 다르고 저녁 때까지 안들어

오니 다같이 오래 이야기를 하며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동안에 많은 가족들이 그랬듯 전 저희 엄마와 함께 베이킹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며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바나나 브레드와 브라우니입니다. 이런 모 든 것이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끼친 또 다른 좋은 영향은 온라인 세계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서로서 못 만나서 저희들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줌과 같은 사이트들은 앞으로, 팬데믹이 아닐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된 저희들의 자원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팬데믹 전에는 영상 통화가 가능은 했지만.

예를 들면 회사원들은 주로 출장을 다니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많은 힘과 돈을 덜어주며 집에서 컴퓨터를 딱 키면 전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팬데믹 때 세계 기억나는 일들 중에서 인상 깊었을 때는 저희 외할머니의 팔순생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려고 비록 실제로 다같이 있던 못했지만 위스콘신에 계신 저희 작은 이모 가족, 보스턴에 있는 저희 가족과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큰 이모가 다같이 화면으로라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성장한 인터넷 덕분에 전세계에 흩어져서 자주 못보는 가족을 그나마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팬데믹 때문에 제 인생에서 손해 본점도 많았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수많은 추억들을 남겨주었습니다.

[10학년 부문 공동 대상 수상작]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울 때

안유진(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나는 디저트를 정말 좋아한다. 항상 저녁을 먹고 감칠맛 나는 바삭바삭한 과자, 또는 부드럽고 달달한 케이크 등 단 것을 찾게 된다. 처음에 먹을 때는 정말 맛있지만 먹다보면 점점 중독되어 멈출 수가 없게 되고 속이 느끼해지고 살 찌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후회감이 몰려온다.

국뽕도 마찬가지다. 국뽕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부르는 신조어다. 국뽕도 적절량만 들이켜야지, 지나치면 독이 된다. 자기 나라에 대해 애국심을 가지는 태도는 좋은 태도이다. 애국심이 있어야 좋은 문화, 사람, 정부 등이 생겨나고 좋은 나라가 나오기 때문이다. 앞에 말했듯이 이것을 소위 '국뽕' 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 국뽕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그 나라에 피해를 주고 비뚤어진 민족주의를 만들게 한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대표적이 예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좋은 면만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많은 정보들을 과장해서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유튜브에 한글이 세계 최고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문자라고 주장하고 옹호하는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전부 거짓말과 과정으로

포장된 영상이라고 한다. 한글은 우리 한민족을 위해 딱 맞춰 커스텀 된 문자이지 다른 나라보다 더 우월하다는 건 근거 없는 소리이다. 한글은 실제로 배우기도 어렵고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자잘한 약점이 많다. 그럼에도 한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한글이 발명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한문이나 일본식 표기를 쓰지 않아도 됐기에 한국어에 딱 맞는 문자라는 타이틀이 생겨날 수 있게 됐다. 바로 이런 점을 알려야지 나는 비로소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그 나라의 밝은 면만 배우지 않고 어두운 역사도 다 배운다. 독일의 멋진 문화, 승리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독일이 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들도 다 배운다. 그리고 독일은 이 만행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한다. 그렇다. 나는 한국의 밝은 면만이 아닌 우리가 저지른 가슴 아픈 역사, 한국의 참 모습이 알려지는 모습을 볼 때 한국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 어서 한국의 참 모습이 세계에 알려지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10학년 부문 공동 대상 수상작]

꽃과 사람의 차이

이 샘(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인터넷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8-90년대에 유명세를 탔던 SB워너비의 김진호님(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ㅜㅜ)를 국민 MC 유재석님이 인터뷰하는 영상이었는데 그곳에서 가수분들이 했던 얘기가 저를 깊게 움직였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많은 어머니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꽃사진인 경우가 꽤나 있는데요, 자신을 키우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가장 예뻐했던 청춘을 회상하면서 해 놓은게 아닐까...라고 김진호님께서 해석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꽃은 저희의 삶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피기 전의 상태는 어릴 때, 만개한 상태는 청춘, 그 후는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중 청춘과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춘은 참으로 아름다운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젊을 때이기도 하며 가장 재미있는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삶이라는 꽃이 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영원 할 것만 같았던 젊음도 손안에 있는 모래처럼 저희를 떠나 흘러내리기 시작하

죠. 꽃은 영원히 피어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정 시간 후에 시들어 버리는게 꽃이죠.

"나의 청춘이 지나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지?" 라는 고민은 저만 해 본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가장 찬란한 시절 후사는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겠네요. 어쩌면 꽃이라는건 자연이 알려주는 매우 슬픈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꽃과 사람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미래에 없다고 그 미래를 포기하는 건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내용물을 건드려 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버리는 것과 비슷한 행위이겠네요.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청춘 후에서도 그만큼 값지고 소중한 경험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중에 나이가 많아졌을 때 저의 청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간은 시들지 않고 나는 "나의 현재의 삶이 나의 청춘 못지 않게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뉴욕 증권시장의 25일 모습. 증권시장의 오르세를 반영한 듯 비교적 평온한 표정들이다

뉴욕증시, FOMC 의사록에 안도 랠리... 다우 0.6% ↑ 마감

(뉴욕=연합뉴스) 운영속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는 5월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에 안도하며 상승했다.

25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1.66포인트(0.60%) 오른 32,120.28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25포인트(0.95%) 상승한 3,978.7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0.29포인트(1.51%) 뛴 11,434.74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초 투자자들이 FOMC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를 유지하면서 지수는 보험권에서 등락했다. 하지만 이후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 주가는 오름폭을 확대했다.

연준은 지난 5월 3~4일 열린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 참석자는 금리 목표치의 50bp 인상이 앞으로 2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제품 과일 연준 의장도 이번 주 열린 행사에서 앞으로 두 차례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준의 이번 의사록은 크게 새로운 것이 없었으나 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렸다.

연준은 "참석자들이 이러한 혹은

다른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물론 연준은 "참석자들이 경제 전망과 위험에 따라 제약적(restrictive) 기조가 적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과월 의장도 앞서 연설에서 금리가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립 금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5%로 전날의 2.85% 수준에서 하락했다. 금리는 최근 들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보여왔다.

개장에 앞서 발표된 4월 미국내구재(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 수주가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 상무부는 4월 내구재 수주실적이 전월 대비 12억 달러(0.4%) 증가한 2천6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7% 증가보다는 적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도 주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와 운송비, 원료비 등의 상승으로 기업들이 점점 더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스포츠용품 판매점 디스 스포팅 굿즈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인해 연간 전망치를 하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주가는 장중 크게 하락했으나 9%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의 주가는 연간 매출 증가를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14% 이상 올랐다.

주택 건설업체 톨 브라더스의 주가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8%가량 올랐다.

의류업체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예상보다 분기 손실 규모가 작고, 매출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6% 이상 뛰었다.

이날은 장 마감 후 스노우플레이크와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S&P500지수 내 유틸리티와 헬스 관련주만 제외하고 9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임의소비재와 에너지, 기술 관련주들이 1~2% 이상 올랐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의사록은 새로운 것이 없었으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증시가 반등했다고 해석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 수석 투자책임자는 "의사록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으나 시장은 연준이 이미 제시했던 매과적 기조보다 더 매과적인 것은 듣고 싶어하지 않았었다"라고 말했다.

씨티즌스의 에릭 멀리스 매니징 디렉터는마켓워치에 "연준이 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앞으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연준은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과도한 긴축이 경제를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마켓워치에 "시장이 바닥을 친 것 같다"라며 S&P500지수가 최근 3,850선을 테스트했으나 이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밸류에이션) 할인 과정, 금융 환경의 공격적 긴축,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모두 통과했다"라고 덧붙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3.3%를 기록했다. 한 달 전 기록한 80% 수준에서 오른 것이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08포인트(3.67%) 하락한 28.37을 기록했다.'

ysyoon@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Y 27th - JUNE 2nd,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40 years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NOBLE NEOBIANI FOR YOU AND ME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며, H 마트와 함께 한국 궁중요리인 너비아니를 만들어보세요!

Marinated grilled beef slices are here to wow your tastebuds! Cook some Neobiani and make sure to honor and remember those who fought for our freedom this Memorial Day weekend!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p>MARATHON Ataulfo Mango 마라톤 아틀포 망고 BOX \$14.99</p>	<p>California Jumbo Cherry 캘리포니아 체리 \$7.99 LB</p>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EA \$8.99</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 사과 LB \$1.69</p>	<p>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p>
<p>Kabocha 단호박 LB \$0.99</p>	<p>Israel Orri Mandarin 이스라엘 오리 만다린 LB \$2.49</p>	<p>White Cabbage 양배추 LB \$0.99</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SIZE 10 UP/LB \$12.99</p>	<p>Fresh Boneless Pork Shoulder Butt 생 뼈없는 돼지 목전지살 LB \$5.99</p>
<p>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3.49</p>	<p>Frozen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불고기 SLICED/LB \$6.99</p>
<p>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LB \$16.99</p>	<p>Frozen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냉동 일찬순대 1.5 LB/PKG \$8.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SUHYUP Dried Anchovy 수협 지리용 멸치 10.58 OZ/PKG \$15.99</p>	<p>YOUNGSIM Frozen Cold Seaweed Soup 영심 오ষ 미역냉국 1.32 LB/PKG \$4.99</p>
<p>Frozen Headless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새우 13-15 SIZE/LB \$12.99</p>	<p>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S/LB \$19.99</p>
<p>SHINWHA Roasted Dried Filefish Fillet 신화 쥐포구이채 4.58 OZ X 2 PKG \$10.99</p>	<p>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7.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39.99</p>	<p>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Chapagetti 농심 짜파게티 4.48 OZ X 16 EA/BOX \$15.99</p>
<p>H MART SMART CARD ONLY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04 OZ X 12 EA/BOX \$12.99</p>	<p>H MART SMART CARD ONLY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 OZ \$9.99</p>

<p>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가가야기 쌀 15 LB \$26.99</p>	<p>HAI0 Beef Short Rib/Bulgogi Marinade 해오름 소갈비/소불고기 양념 1.85 LB \$4.99</p>	<p>THREE CRAB BRAND Fish Sauce 삼계 피쉬 소스 24 FL OZ \$6.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p>	<p>HAI0 Frozen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빛 갈비 2.5 LB PKG \$14.99</p>
<p>HAI0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Zaru Soba 해오름 메밀국수 3 LB \$4.99</p>	<p>YOODONG Canned Mackerel 유동 고등어 캔 14.1 OZ 2\$5 FOR</p>	<p>YOODONG Canned Bai-top Shell (Whelk) 유동 자연산 골뱅이 캔 14.1 OZ \$6.99</p>	<p>CHUNGJUNGWON Luncheon Meat 청정원 런치미트 12 OZ \$2.99</p>	<p>ORGANIC FARM Organic Peeled Roasted Chestnut 유기농장 유기농 구운 간 밤 3.52 OZ 2\$3 FOR</p>
<p>HAITAI Matdongsan Peanut Crunch 해태 맛동산 10.58 OZ \$2.99</p>	<p>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3.99</p>	<p>HELLO! Lined 2PC Mug Set 헬로! 줄무늬 2인 머그 세트 -\$9.99 \$6.99 2 PCS SET</p>	<p>Mahogany Large Chopping Board 마호가니 (인도산) 원목 도마 HANDLE/LEAF -\$16.99 \$11.99 EA</p>	<p>HELLO! Square Egg Fry Pan with Induction Base 헬로! 사각 에그 후라이팬 (인덕션 겸용) 13 X 18 CM -\$8.99 \$6.49 EA</p>

NOW AVAILABLE BEER & WINE ASIAN STYLE!

NOW THE BEST SELECTION OF ASIAN ALCOHOL, ALL IN ONE PLACE!

드디어 판매 시작! 베스트 아시안 술을 H Mart에서 만나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크리스 최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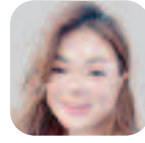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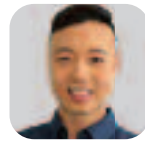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Samantha Cordon
857.333.2088
samanthajcordon@gmail.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청와대서 가장 은밀한 곳 '관저' 열렸다...내부에 사우나·벽난로

침실·거실·식당 외에 접견실도...허달재 회화 외에는 그림 없어, 내일부터 일반인도 창문 너머로 관람...본관 대통령 집무실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족이 거주해 가장 은밀했던 공간이자 많은 관람객이 내부 모습을 궁금해했던 관저의 속살이 공개됐다.

대통령과 영부인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본관도 내부가 개방됐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본관과 관저 내부 공개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기자들에게 전격적으로 두 곳을 보여줬다.

청와대 안쪽에 있는 관저는 전통 방식으로 지은 7자 형태 건물이다.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해 오른쪽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가장 먼저 연회실이 보였다.

탁자와 의자가 없어 웅한 연회실에는 모란을 묘사한 듯한 병풍과 와인 냉장과 찬장이 있었다. 찬장 안에는 와인잔과 현대미술 거장인 이우환의 그림이 들어간 접시, 컵 등이 놓여 있었다.

연회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이동하니 대형 탁자와 의자 8개, 소파가 있는 접견실과 대통령들이 용모를 다듬었을 메이크업실이 나타났다. 이곳까지가 관저에서도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듯했다.

모서리를 돌아 방과 식당, 화장실이 보였다. TV와 벽장 등이 남아 있었지만, 집기가 거의 없어 쓸렁했다. 복도에는 이월종이 그린 '제주 생활의 중도'나 김종학 작품 '설악산' 같은 회화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떼어낸 상태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림은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방이 몇 개 있는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저에서 대통령이 생활했던 곳은 가장 안쪽에 있었다. 관저 정문에서 보자면 왼쪽 공간이었다. 정문 안쪽에는 의재 허백련 손자인 허달재가 꽃이 만발한 나무를 표현한 대형 그림이 있었다.

대통령 거주 공간의 거실에는 벽난로와 피아노가 있었고, 침실과 드레스룸을 비롯해 사우나실을 갖춘 화장실이 딸려 있었다. 드레스룸에 설치된 옷장만 해도 15개가 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웠던 고양이 '짱짱이'의 먹이를 두었던 식기도 남아 있었다.

관저는 살림집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넓었고, 천장에 다양한 모양의 샹들리에가 있어 조명에 신경을 많이 썼음을 알 수 있었다.

관저에 앞서 둘러본 본관도 넓었다. 파란색 덧신을 신고 본관 동쪽

문으로 입장하니 가장 먼저 총무실이 보였다. 총무실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회의를 하는 공간이었다.

붉은색 카펫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복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서양식으로 꾸며진 인왕실이 나타났다. 천장과 벽, 바닥이 모두 흰색이어서 밝고 화사한 느낌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간담회나 오찬, 만찬 등이 열렸다고 했다.

인왕실 벽면에는 통영 출신 화가 전혁림이 2006년 완성한 '통영항'이 걸려 있었다. 푸른색이 감도는 그림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흰색 톤인 인왕실과 강렬한 대비를 이뤘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펼쳐졌다.

1층 서쪽에는 영부인 집무실인 무궁화실과 국무회의가 진행됐던 세종실이 있다. 무궁화실의 접견 공간에는 역대 영부인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세종실에서는 조선시대 왕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회화인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를 닮은 커다란 그림과 '훈민정음' 문구 일부를 볼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은 2층에 있다. 집무실에는 무궁화와 봉황 장식 앞에 놓인 책상,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를 제외하면 별다른 물품이 없었다. 바닥은 학, 사슴, 거북 등을 그린 현대판 십장생도로 장식돼 있었다.

십장생도는 집무실과 연결된 접견실에도 있었다. 벽면에 황금색 십장생 문양도가 있고, 창문은 한지로 마감해 한국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본관에서도 각양각색의 조명이 인상적이었다. 또 커튼에 달린 발의 박쥐 문양이나 창덕궁 낙선재 돌담에 있는 육각형 귀갑문 장식 등 전통 요소를 많이 활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박정섭 문화재청 대변인은 "지난 23일 영빈관과 춘추관을 개방한 뒤 국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며 "다른 건물의 추가 개방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람객은 26일부터 본관 내부에서 세종실을 제외한 주요 공간을 둘러볼 수 있지만, 관저는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만 실내를 볼 수 있다.

25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내부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2.5.25 pdj6635@yna.co.kr



대통령 가족의 거주 공간이던 청와대 관저 내부 공개를 하루 앞두고 25일 오후 취재진이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내부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집무실



청와대 가족거주 공간



청와대 무궁화실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용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용자들 도와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 낮은 이자율 · 최상의 결과
개인별 맞춤 용자 · 캐쉬아웃

바로 연락 주세요.

“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Lim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신문사
정부령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광고입니다. - 2021 광고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Dablu)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T>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5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ad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간판 및 사인

초이스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제23차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2022년 6월 11일 (토), 저녁 5-7시



NE 시민협회 회원님과 보스톤 동포여러분께,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협회원님과 가족모두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민협회가 2022년 6월 11일(토요일 오후5~7시)
"23 차 차세대 정치인턴을 위한 특별 모금행사"
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장소는 뉴턴시에 위치한 BOSTON MARRIOTT
NEWTON, 2345 Commonwealth Ave, Newton
MA 이며, 코로나사태가 진정되어 올해에는 대면으로
거행됩니다.
기존 연사로 미셸 우 (Michelle Wu)보스톤 시장과
하원의원 바나 하워드(Vanna Howard)가 초대되었습니다.

저희 시민협회는 특별히 한인2세-사무총장과 젊은
임원이 지난해부터 대거 영입되어, 한인이세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이세-젊은이가 중심이
되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차세대 정치인턴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
대학과 고등학생 인턴, 총 7 명이 선발되었고, 미셸우
(보스톤 시장), 태키 찬 (아시아 하원의원),
소냐 창-디에즈 (아시아 상원의원), 투 뉴엔
(아시아 우스터 시의원) 사무실에 배치되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행사 일시	2022년 6월 11일 (토), 저녁 5-7시
행사 장소	BOSTON MARRIOTT NEWTON 2345 Commonwealth Ave, Newton MA
티켓 가격	일반: \$100, 학생: \$60 (저녁포함)
초청 연사	바나 하워드 주-하원의원, 미셸 우 보스톤 시장 등
행사 문의	양미아 회장, 김성군 이사장, 소피 박 사무총장 info@kacn-ne.org

저녁식사 제공.

후원단체

재외동포재단(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www.kacn-ne.org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최고의 가격 할인 UNBEATABLE PRICE!

5월 26일 ~ 6월 2일 2022년

냉동 삼겹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도전! 최저가
FAMILY PACK/LB

\$4.49



일본 No.1 녹차 브랜드 이토엔 녹차



500 mL X 6 BTLS/PKG

\$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86)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마음가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주식시장이 거의 20% 폭락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 매체는 어김없이 “폭락(Plunge)”, “빠른하락(Tumble)”, “피바다(Bloodbath)”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투자자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침체기(Recession)로 이어진다는 소식도 종종 들린다. 폭락하는 나의 소중한 자산을 주시하면 불안한 마음을 떠나서 무섭다. 잠도 편히 못 잔다는 것이 요즘 일반 투자자의 공통된 심정이다.

팬데믹 시작과 많은 사람이 집에 머물며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주식 투자로 대박 났다는 소식도 끊임없었다.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주위 친지에게 열심히 물어보고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은 후 투자 결정했다.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는 투자 돈에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손에 꼭 쥐고 있던 비상금까지 주식에 투자했다. 어떤 용감한 투자자는 돈을 빌려서(Margin)까지 투자했는데 최근 시장 폭락으로 잠을 못 자는 것이

주식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 많은 사람이 주식은 도박(Casino)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박과 주식 투자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도박은 시간이 갈수록 돈을 잃지만, 주식은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개별적인 회사에 투자한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고 상승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주위(인터넷 등에서 언급)에서 뜨거운(Hot)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비슷하다. 개별적인 회사나 특정한 종목에 대박을 기대하며 베팅(Betting)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인(Bitcoin)은 최고점(Nov. 2021)에서 54% 폭락, 게임스탑 67% 폭락, 넷플릭스 75% 폭락, 펠러튼은 최고점(June 2021)에서 무려 89%가 폭락하고 있다. 특정한 종목은 세월이 지나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기억해야 한다.

미국 500대 기업(S&P 500 Index)의 투자를 고려해 보자. 주식시장 1926년부터 2020년까지 95년 동안 1년씩 보았을 때 주식시

장이 올라간 적은 75% 그리고 내려간 적은 25%였다. 이것을 5년씩 평균으로 보면 올라간 적은 88% 그리고 내려간 적은 12%였고 10년 평균은 95%가 올라갔고 단 5%만 내려갔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10년 동안 머물렀다면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투자한 원금보다 돈이 불어났고 원금보다 적어질 확률은 단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상승하는가? 그 이유는 어떤 회사가 수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한 예로 1982년 미국 주식시장 전체 금액이 \$1.2 trillion이었는데 현재 한 회사인 애플(Apple) 주식 총액이 \$25 trillion인 것처럼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나감에 커진다.

미국이 독립한 1776년에는 전 국민의 80%가 먹고살기 위해서 농업에 종사했다.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는 단 2%에 불과한데 전 국민이 먹고산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며 농업에 종사했던 그 많

은 사람이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 마디로 기술 혁신과 놀라운 생산 기술(Innovation & Productivity) 때문이며 인구 대다수가 미래의 혁신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1926 이후 20% 이상 폭락을 26번 경험했고 머문 기간은 평균 9.6 개월이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하락하기도 하지만, 1990년 \$10,000 투자는 2020년 말 \$180,000 그리고 2010년 \$10,000 투자는 2020년 말 \$38,000으로 불어났다. 제대로 하는 장기투자는 결국에는 투자 돈이 불어난다는 사실이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선 모든 방송매체를 잠시 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훨씬 유익하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송 매체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마음이 다급해진다.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을 손으로 잡는 절박하고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4세 풍월주風月主 천광공天光公(1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은 피비린내를 풍겼다. 그들이 펼친 왕위쟁탈전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다.

785년에 원성왕으로 즉위한 김경신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장남 김인겸(혜충대자)는 971년에 죽었고, 차남 김의영이 태자(헌평대자)가 되었지만 그도 794년에 죽었다. 삼남은 김예영이다. 원성왕은 차남 헌평대자마저 죽자, 장손자인 인겸의 아들 김준옹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김준옹은 800년에 죽었는데 출생연도의 기록은 없다. 다만 준옹의 둘째 동생 김수중(제42대 흥덕왕)이 777년에 태어났고, 준옹의 아들 김정명(제40대 애장왕)이 788년에 태어났기에 아마도 770~775년에 태어났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준옹은 798년에 제39대 소성왕으로 즉위하였다. 이후 재위 2년만에 젊은 나이로 죽었다. 그리고 왕위는 장남 김정명에게로 이어졌다. 800년 애장왕으로 즉위한 김정명은 만 12세였다. 그러자 숙부 김연승(소성왕의 동생)이 섭정을 하였다. 그러다가 809년 7월, 김연승은 섭정보다는 왕위가 더 탐이났기에 당질 김제룡(김예영의 손자, 후에 제43대 희강왕이 된다)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애장왕과 그의 동생 김제명을 함께 살해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그가 제41대 헌덕왕이다. 왕후 귀승부인은 숙부 김예영의 딸이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김장립과 김현장은 당나라에 입조하였고, 삼남은 승려(심지왕사心地王師)가 되었다. 결국

헌덕왕은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822년 상대등으로 있던 친동생 김수중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김수중도 조카인 애장왕과 김제명을 살해하는 반란에 함께 가담하였다. 김수중은 826년 헌덕왕이 죽자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가 제42대 흥덕왕이다. 383 흥덕왕은 836년 12월까지 재위에 하다가 후사 없이 죽었다. 그는 아들 김능유金能儒가 있었는데, 능유가 881년 승려들과 함께 당나라에 갔다가 귀국길에 불행하게도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흥덕왕을 이을 아들이 없자, 왕실에서는 왕위쟁탈을 위하여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다. 흥덕왕의 당질 김제룡金悛隆과 사촌동생 김균정金均貞이 대립하였다. 즉 조카와 숙부가 서로 칼을 겨누는 왕위쟁탈전. 결과는 숙부인 균정은 죽임을 당했고, 승리한제룡이 즉위하였다. 그가 제43대 희강왕이다. 김제룡은 원성왕의 삼남 김예영의 손자이다. 김예영은 아들 김현정과 김균정을 두었는데, 김제룡은 헌정의 아들이다.

382) 785년1월13일(음력),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하늘이 내린 폭우’ 로 인하여 김경신은 왕위에 올랐다. 불어난 알천을 건너지 못한 김주원은 ‘강 건너 용상’ 만 바라보다가, 김경신의 즉위후 후환이 두려워 하슬라(현 강원도 강릉)로 피신했다. 2년후에 원성왕은 김주원을 하서주 도독으로 임명했다. 김주원의 차

남 김현창이 822년에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일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는 자살하였다.

383) 흥덕왕은 826년 만 49세의 나이로 즉위했는데, 2달이 지난 12월 왕비가 죽자 몹시 슬퍼하였다. 얼마후 군신들이 새로운 왕비를 책봉할 것을 진언하였지만, “쌍쌍인 새도 짝을 잃으면 슬퍼하는데, 하물며 좋은 배필을 잃고 나서 무정하게도 어찌 다시 부인을 얻겠는가?” 라며 후비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삼국유사에도 그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권제2 기이제2 흥덕왕과 앵무새). 흥덕왕 재위 때, 828년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당나라 갔던 사신이 차나무 종자를 가져와서 그 때부터 차가 민간에도 널리 퍼졌다(차는 섣덕여왕 때부터 있었다). 또한 832년의 기뭇으로 이듬해에는 대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였다(삼국사기 제10권, 신라본기).

흥덕왕은 귀족들의 사치를 금지하면서 골품제도에 따라 계급별로 복색服色, 거기車騎, 기용器用, 옥사屋舍 등의 규칙을 더욱 강화하여 신분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다(삼국사기 제33권, 잡지 제2).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김경신과 함께 ‘김지정의 난’ 을 진압한 김양상은 다른 방계 왕족을 찾아 시해된 해공왕을 잇기 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김양상/김경신이 일으킨 난을 김지정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지정 일파가 제압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김양상이 해공왕을 시해했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어찌되었든, 780년 ‘김지정의 난’ 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왕과 모든 비빈들이 시해되었다(해공왕은 자녀가 없었다). 정변에서 승리한 상대등 김양상은 섣덕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5년간 재위하였고 후사없이 사망했다.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은 늘 김양상을 조력했던 상대등 김경신이었고, 그 또한 정변으로 왕권을 잡았다. 섣덕왕이 죽자 국민들은 해공왕의 10촌 형제인 김주원을 추대했지만, 정월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김주원이 불어난 알천의 물을 건너지 못하고 지체하는 동안, 궁궐에 있던 김경신이 왕위를 차지하였다(382). 그가 제38대 원성왕이다. 그후 제52대 효공왕까지 김경신의 후손들이 왕좌를 차지하였는데, 그간 신라 왕궁에는 너무나도 많

'키스 식스 센스' 윤계상 "깊이 있는 로맨스 판타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장르물에서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여온 윤계상이 오랜만에 로맨스물로 돌아온다.

윤계상은 25일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키스 식스 센스'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우리나라에 판타지 로맨스가 있긴 했지만, 디즈니+가 심도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장르물을 많이 찍다 보니 현장에 피로도 많고 그래서 사람이 좀 어두워지는 게 있었다"며 "이번 작품은 현장도 밝고 사람들 에너지가 있어서 즐기면서 하다 보니 캐릭터가 잘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어두운 드라마가 많은데 이 작품은 좋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며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즐기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키스 식스 센스'는 타인과 입을 맞추는 순간 미래를 보게 되는 여자 흥예술(서지혜 분)과 뛰어난 오감을 가진 남자 차민후(윤계상)의 로맨

스를 그린다. 여기에 천재 영화감독이자 예술의 전 남자친구 이필요(김지석)가 삼각관계를 끌고 간다.

연출을 맡은 남기훈 감독은 "초감각, 초능력, 여기에 과거가 현재된 이야기"라며 "볼거리도 다양하고 캐릭터들도 입체감이 있다.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도 중요한 요소"라고 관전 포인트를 꼽았다.

이어 "로맨틱 코미디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스릴러적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버라이어티하다고 덧붙혔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여 나오는 데다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처리해야 하는 판타지 요소도 들어있어 연출적인 부분에도 공을 들였다고 했다.

남 감독은 "입술에 타인의 신체가 닿으면 미래가 보인다는 설정에 설득력을 주려면 비주얼적인 연출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시공간이 비틀어진거나 몽환적인 분위기의 CG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장면의 경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카메라 앵글(구도)을 잡았다"며 "세계시장에서도 신선하게 먹힐 수 있는 소재이지 않을까 싶어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계상, 서지혜, 김지석은 각자 맡은 캐릭터 색깔이 뚜렷해서 삼각관계가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계상은 "차민후는 일반인보다 10배 정도 오감이 뛰어나고, 광고업계에서는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며 "하지만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대한다"고 소개했다.

서지혜는 "흥예술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커리어우먼이지만, 차민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며 "그러다 우연한 사고로 (차민후와) 입맞춤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미래를 보고 '멘붕'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김지석은 "이필요는 해외에서 상을 받으면 (첫사랑인 흥예술에게) 청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남자"라며 "전 남친 입장에 빙의하다 보니 두



분(차민후와 흥예술)의 키스신이 집이나 사무실, 탕비실에서까지 많은데 정말 질투가 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맨스뿐만 아니라 광고업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직장인이자라면 공감할 요소가 많다고 전했다.

서지혜는 "야근도 하고, 코피도 터지고, 카페인 과다섭취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며 "저희도 밤

을 새우며 촬영을 하지만, 직장인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윤계상은 "광고를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는지 상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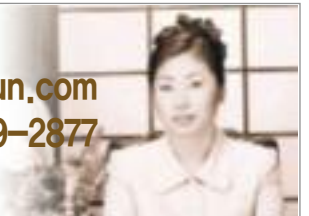
'키스 식스 센스'는 12부작으로 매주 수요일 2회씩 공개된다. 25일 오후 4시 1·2회 공개.

aeran@yna.co.kr

5월 29일 - 6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수월하게 진행될</p> <p>●운수: 서로 함께 갈 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본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1, 3일 길일, 29, 1일 주의.</p>	<p>소띠 원하는 방향으로</p> <p>●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 4일 길일, 30, 2일 주의.</p>	<p>범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p> <p>●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에 써도 효과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해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9, 2일 길일, 31, 3일 주의.</p>
<p>토끼띠 큰 행복감을 줄</p> <p>●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금전: 직원이고 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p>	<p>용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p> <p>●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전: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1, 4일 길일, 2, 3일 주의.</p>	<p>뱀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p> <p>●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금전: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음직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애정: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30, 1일 길일, 31, 3일 주의.</p>
<p>말띠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p> <p>●운수: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금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애정: 편안해집니다. 아직은 특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털어놓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0, 2일 길일, 1, 4일 주의.</p>	<p>양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p> <p>●운수: 가벼운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금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3일 길일, 2, 4일 주의.</p>	<p>원숭이띠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p> <p>●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전: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 4일 길일, 31, 3일 주의.</p>
<p>닭띠 가랑비에 옷 젖듯이</p> <p>●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전: 자기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는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3일 길일, 29, 4일 주의.</p>	<p>개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p> <p>●운수: 후회한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금전: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2일 길일, 30, 31일 주의.</p>	<p>돼지띠 겸손하게 처신해야</p> <p>●운수: 힘들 때에는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금전: 이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애정: 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0, 4일 길일, 31, 3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1월에 태어날 애기를 일년간 돌보아 주실분을 찾습니다. 매일 출퇴근. 또는 주중 5일 다 좋습니다. T. 이해원 617-939-3652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캐쉬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박찬욱 마법 같은 연출"...'헤어질 결심' 칸 공개작 중 최고평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3일(현지시간) 칸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공개되자 의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전문매체 스크린 데일리가 공개한 이 작품의 평점은 3.2점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중 최고점을 기록해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르덴 형제 감독의 '토리야 로키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등 유력 경쟁작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 역대 영화제에서 언론사들의 우호적인 반응이나 높은 평점이 반드시 수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헤어질 결심'의 수상을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스크린 데일리는 "매혹적이고 독선적인 신(新)누아르"라고 작품을 소개하면서 "시각적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화다. 연출에 있어 피상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찬욱은 ('헤어질 결심'으로) 2022 칸영화제 경쟁 부문의 기준을 높이고 독보적인 비주얼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헤어질 결심' 속 박찬욱 감독의 연출을 '서스펜스와 스릴러 영화의 대가로 꼽히는 거장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에 견주며 별 다섯 개로 5점 만점을 줬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살인 미스터리로 포장된 눈부신 사랑 이야기"라 평가하며 박찬욱 감독의 연출에 대해 "마법에 가깝다"고 극찬했다.



이어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 대중들을 사로잡을 새로운 한국 스릴러"라고 평가했다. '헤어질 결심'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강력계 형사 해준(박해일 분)과 사 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박찬욱 감독 연출작 중 네 번째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stopn@yna.co.kr

블랙핑크, 美 롤링스톤 표지 모델..."팝의 초신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한국의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유명 음악 매체 롤링스톤 표지를 장식했다.

롤링스톤은 23일(현지시간) 블랙핑크를 '팝의 초신성'(Pop Supremova)이라고 표현하며 6월호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

롤링스톤은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이라며 "그들의 엄청난 성공은 한국 문화산업의 세계적인 인기를 가리키는 한류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이어 "블랙핑크 음악은 폭발력을 발산한다. 활력을 북돋우는 동시에 중독성이 있다"며 "힙합 비트에 하우스,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등을 믹싱

해 불꽃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다.

롤링스톤이 이날 보도에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한 연예전문 외신은 블랙핑크가 영국 스파이스 걸스, 미국 데스티니스 차일드에 이어 세 번째로 롤링스톤 표지에 오른 걸그룹이 됐고, 아시아계 걸그룹 중에서는 최초라고 전했다.

멤버 제니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블랙핑크의 힙합은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우리의 힙합은 반항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멋진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 지수는 "엄마와 아빠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내가 월드 스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내 위치가 달라



졌을지 모르지만, 난 역시 (이전의) 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뉴욕을 선교 도시로!"

"뉴욕을 선교 도시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 Good TV 후원으로 오는 5월 26일(목) - 5월 29일(주일)까지 <뉴욕선교대회>가 열린다. 뉴욕에 수업이 있어 오가며 각 나라에서 세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사모님 몇 분 포함 34 분이 세계의 심장이라 여기는 뉴욕에 오신다는 소식이다. 이 때가 기뻐다 싶어 계획을 잡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보며 감사와 축복에 가슴의 뜨거움으로 이미 성령 충만으로 차오르는 것이다.

이번 선교대회 참석 사역 나라는 코스타리카(조운제 선교사), 파라과이(양찬근 선교사, 박경주 선교사), 태국(박대성 선교사), 몽골(고 엘리사 선교사), 콜롬비아(김선훈 선교사, 김현주 선교사), 불가리아(배점선 선교사), 인도네시아(안태룡 선교사), 말레이시아(박상배 선교사), 키르기스스탄 아이티(예레미야 박 선교사), 북한(이순례 선교사), 유대인(이스라엘/김현일 선교사, 고운정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선교사, 황은숙 선교사), 인도(이태진 선교사), 일본(

최영호 선교사), 에콰도르(김창호 선교사, 김영애 선교사), 캄보디아(곽시온 선교사, 정바울 선교사), 페테말라(유광수 선교사, 윤영숙 선교사), 국제도시선교(김호성 선교사, 김미라 선교사), 아프카니스탄(이라함 선교사), 우크라이나(김주순 선교사), 아프리카 가나(홍수정 선교사), 이렇듯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총출동하신다.

뉴욕은 세계의 심장이라고 일컫지 않던가. 각계각층에서 세계 최고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미국의 중심 도시가 뉴욕이다. 나 역시도 미국에 처음 도착했던 곳이 뉴욕이다. 20대 초반의 꿈이 넘실거리고 꿈틀대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스턴에서 30여 년을 살며 뉴욕을 한 번씩 방문하면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꿈들이 몽실거리고 짝꿍(남편)과 즐겁고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보스턴에서 뉴욕까지의 4시간 정도의 운전이 그리 지루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 각처에서 3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오미

크론으로 얼마나 힘들었던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고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한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마다에 근심과 걱정과 위기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도 그러하거나 나라도 넉넉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현실에 처한 상황은 비참하리만큼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런 때에 나와 내 가족만 내 나라만 안전하면 될까.

이제는 세계 각국이 우리 몸의 각 지체처럼 한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나 경제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여파로 영향을 받게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고 함께 나아가야 개인이든 나라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든, 나라든 '독불장군'의 시대는 아주 오래 전에 지나갔다. 현대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인지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가야 한다.

2022년 <뉴욕선교대회>를 총괄하는 김희복 목사(두나미스신학대학교 학장(교수/박

사)는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뉴욕선교대회는 뉴욕지구한인협의회 50년 동안에 처음으로 큰 선교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서 세계 각국 선교사들을 모시고 각 지역의 사정들을 함께 듣고 나누고 서로에게 치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다. <뉴욕을 세계 선교 도시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착안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은 김경렬 목사(두나미스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박사)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뉴욕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그외 공동준비위원장으로 뉴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에서 장소를 나누시고 34명의 선교사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점심·저녁 모두를 책임지신다고 한다. 또한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이번 대회 모금을 위해 골프대회를 준비하신 이준성 목사(두나미스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박사)의 준비와 기도가 있었기에 이 대회가 가능했으리란 생각이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Praise The Lor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노익장 老益壯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예능정치라 한다 하더라. 정치인들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말한다. 인지도 높고 이미지 변신에 그만이라는 거다. 소통이며 얼굴을 알리겠다는 노력일 게다.

트럼프대통령 시절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뉴스를 만들었다. 아니 대통령은 마스크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다는 말이 옳겠다. 자주 티비에 얼굴을 비추고 등장할적엔 친근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현 바이든대통령의 행보는 무척 조용한 모양이다. 큰 뉴스가 없다보니, CNN도

Fox뉴스도 그렇그렇하다 했다. 덕분에 시청율은 저조한데 방송사 광고수익이 줄었다고 전한다.

바이든대통령에 관한 신문기사記事이다.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후 잠시 깜박했다. 상대도 없는데 악수하는 자세를 취했고, 연단에서 물러날 방향을 찾지 못했다던가.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나이는 속일 수없는 모양인바.

노익장老益壯. 네이버사전의 정의를 따른다. 늙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

아짐." 스타이너란 미국 노인이 이야기이다. 그는 현재 89세인데, 브라운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직 의사였는데, 학문을 향한 열정을 버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의 학구열에 눈길이 간다. 다른 분야도 아닌 물리학이다.

100세의 브라질 노인도 있다. 나이도 범상치 않은데, 무려 84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여전히 현직에 머물고 있는데, 기록은 기네스북에도 올랐단다. "조바심 내지 말고 느긋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비결" 그가 했다는 말이다.

한국에도 있다. 원로 방송인 송해씨가 그러하다. 그는 94세 라 했는데, 과연 노익장이라 할만하다. 아니, 초초노익장이라 해야 하나. 전국노래자랑을 얼마나 오래 진행했더러? 그가 병원이라도 입원한다면 큰 뉴스거리일 게다.

나태주 시인이다. 그의 시 한편이다. 아끼지 마세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사랑스런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한국 새 대통령은 한창 일할 나이이다. 아끼지 마시고 모든걸 다 쏟아 부어 내시라. 그러나 부디 조바심 내어 급하게 다가서려 하지 마시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더랬다.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창세기 47:8)

• **HITRONS SPECIAL** •

안마의자 & 김치냉장고 스페셜 세일

EVERYCARE EC 7300

더욱 고급스러운 디자인
인체 리듬에 맞춘 마사지 기능

- 따뜻한 온열 테라피 기능
- 거북목 교정 및 목관절 교정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탑재
- 24가지 자동프로그램
- 터치스크린으로 사용 편리
- 고급 부속 사용으로
소음이 거의 없고
고품질이 보임
- 명품재, 무릎지,
종아리, 무릎위까지
최고급 롤 마사지가림



EVERYCARE GF 500

내구성이 강하고, 고성능 기능
함께...안마모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정돈 생선 필락으로
반달같은 안마
- 풀리드 3원시스템
동작으로 마사지대상
고관절 완화 가능
- 라오드 컨트롤이
신체구멍으로 표시
되어 편리하게
조작 가능



EVERYCARE PKH 202

저렴한 가격! 가격대비 좋은
성능의 진신 안마의자!
간단한 리모컨 조작 가능!

- 간단한 리모컨 조작 기능으로
명품같은 만족감을 선사할
사용 가능
- 리모컨에서 입지 가능하고
안마의자 기능 동시사용
- 작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



4D 프리미엄 안마의자 [리쏘] LSE-50N 페블린

최고급 사양과 고성능 명품 안마의자
실속있는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한국내
온라인 판매
1위

- ◆ 4D 마사지: 수평적인 움직임을 넘어
입체적인 돌출 마사지 구현
- ◆ SL 타입 프레임: 내음에 맞춤 설계된
듯한 최적의 SL 프레임
- ◆ 발 안마 특화기능
- ◆ 등/종아리 온열
- ◆ 슬라이딩 기능
- ◆ 블루투스 스피커
- ◆ 24개 자동코스
- ◆ 7인치 터치 리모컨
- ◆ 퀵보조 리모콘
- ◆ 한국내 생산
천연가죽



FUJI FJ 8500

후지 안마의자가 강력한 첨단 기능으로
다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 ◆ 타 명품 안마의자 장점만을 골라 만든 최상급 안마의자!
- ◆ 프로 안마사 손길에 가장 근접한 마사지 제어!
- ◆ 몸속 깊숙이 침투! 확실한 마사지효과!
- ◆ 최첨단 기술과 정밀 부품 사용으로
소음이 적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고장율이 낮음!
- ◆ 거북목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기능 탑재
- ◆ 탄소섬유 발열체
장착으로 원적외선
온열 테라피 기능
- ◆ 발바닥에서 부터
무릎 위까지 최대
구간 안마기능



김치냉장고 전품목 초대박 세일

Special Gift

◆ 행사기간: 2022년 6월 15일까지 ◆

탑재 김치냉장고 구입시
**10인용 밥솥
무료증정**

- ◆ Price Match to
Big Box Stores!
- ◆ 최저가 보장!
- ◆ 가격 문의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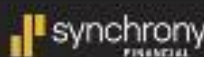
스페셜 선물 증정

삼성* 418L 2문형 / 파랑	삼성* 418L 2문형 / 티안	삼성* 330L 2문형 / 실버	삼성* 330L 2문형 / 화이트	LG 330L 3문형 / 3 Door	LG 400L 4문형 / 4 Door
삼성* 173 cu.ft 2문형 / 브라운 In-Store Special Promotion	삼성* 220L 2문형 / 실버	삼성* 180L 2문형 / 화이트	삼성* 127L 2문형 / 실버	LG 100L 2문형 / 4.5cuft	삼성* 100L 미니퍼미형 2021 NEW MODEL 초대형 삼성김치냉장고 출시 In-Store Special Promotion

★ Delivery Available to all of Massachusetts, Maine, Vermont, New Hampshire and Rhode Island customers. ★

HITRONS™
LEXINGTON, MA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 www.hitrons.com



◆ 원주이자 특권스마트폰은 Synchrony Financial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용확인이 필요하며 Synchrony Financial 적격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모든 고객이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 부민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 삐끗... 발목 손상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 부민병원 족부 전문의 이 인혁 과장의 도움을 받아 발목 손상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려고 한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 좋은 날이 왔다. 하지만 평소보다 많은 운동으로 발목을 다쳐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발목은 종아리뼈, 정강뼈, 발목뼈 세 개가 만나 이뤄진 관절이다. 뼈 사이에 붙은 인대는 발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발목은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손상되기 쉽다. 특히 손상된 발목을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발목 인대가 과열되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발목 질환은 20~30대 젊은 환자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발목염좌와 골절이 있다.

발목염좌는 발목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비틀리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현상이다. 발목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인대가 손상되면 관절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고 불안정해진다. 손상된 발목 인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발목불안정증, 발목관절염으로 악화할 수 있어 발목이 불편하거나 험거운 느낌이 들면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발목염좌는 수술 치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휴식, 냉찜질, 약물치료, 깁스 등의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면 발목 인대 봉합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발목 인대 봉합술은 발목염좌의 대표적인 치료로, 늘어나거나 끊어진 인대와 바깥쪽

관절주머니를 당겨서 봉합해 발목을 잡아주는 수술이다. 최소절개로 출혈과 상처가 적고 수술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발목 골절은 경골(정강뼈)과 비골(종아리뼈) 사이에서 발생하는 골절을 말한다. 발목은 관절면이 'ㄷ' 자를 엮어 놓은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관절 안쪽까지 골절되어 관절면이 어긋난 경우, 관절면을 정교하게 맞춰야 해서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만약 골절의 정도가 경미하면 깁스 등 보존적인 치료로도 회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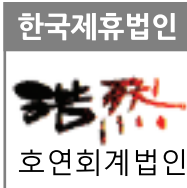
발목 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골절로 인해 어긋나 있는 뼈를 정밀하게 맞춰 고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피부를 절개해 1mm 오차도 없이 뼈를 맞추고 금속 판이나, 금속 나사를 이용해 고정한다. 수술 후에는 해당 부위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목을 사용해 골절부위를 고정하고 목발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수술 치료와 재활을 잘 받았다는 가정하에 '단순 골절' 이라면 치료 후 최소 6주가 지나야 불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심한 복합 골절' 이라면 2개월 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발목 손상 가볍게 보지 마세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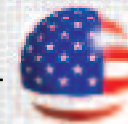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Boston CUCKOO 제품 가격표

※ 제품 등록비 \$0, 5년 계약 기준 (LED마크 포함 임시불거품 제외)
※ 전세품 TAX 별도

제품 및 가격 문의 : 617-879-2725 / 617-775-0340

CP-TN100S·DS



CP-TN100S·DS (1) CP-TN100S·DS (2) 컬러

셀프 클리닝 직수 끓는물 정수기

-100°C 끓는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뜨거운 물을
제공합니다. 즉시 직수권, 냉수권, 고고 온도 끓이는
실고 간편하게 교체 관리하는 초간단 10초 필터교체

추천
플랜

렌탈 \$36.99/월

일시불 \$1,399

CP-P011G·T



CP-P011G·T (1) CP-P011G·T (2) 컬러

셀프 클리닝 직수 냉온정수기

-원격제어다. 즉시 직수권, 냉수권, 고고 온도 끓이는
실고 간편하게 교체 관리하는 초간단 10초 필터교체
프리후설의 연립 기술하여 2개의 정수기 사용 효과

추천
플랜

렌탈 \$31.99/월

일시불 \$1,399

CP-MN011B·W



CP-MN011B·W (1) CP-MN011B·W (2) 컬러

셀프 클리닝 직수 상온정수기

-원격제어다. 즉시 직수권, 냉수권, 고고 온도 끓이는
실고 간편하게 교체 관리하는 초간단 10초 필터교체
프리후설의 연립 기술하여 2개의 정수기 사용 효과

추천
플랜

렌탈 \$19.99/월

일시불 \$599

CP-FR601HW



역삼투압 냉온정수기(카운터탑)

-고효율의 세척 기능
냉/온수 ON/OFF 전환 기능
역삼투압 처리장치

추천
플랜

렌탈 \$37.99/월

일시불 \$1,399

CAC-C1020FW



공기청정기 355 sq.ft

빈방 용량 360 sq.ft의 대형
정공보다 12,250개의 미세
스타미어 / 미분 / 나노 필터를 포함

추천
플랜

렌탈 \$18.99/월

일시불 \$549

CAC-D2020FW



에어플 공기청정기 710 sq.ft

빈방 용량 360 sq.ft의 대형
초미세먼지 실시간 감지 센서

추천
플랜

렌탈 \$24.99/월

일시불 \$799

CBT-C5031W



순간 온수 직수형 비데 E-Type

-물탱크 없는 순간온수
공스테인리스 스텝 / 온수/냉수온도, 수압 조절
스톱 자동정지, 여노비 기능

추천
플랜

렌탈 \$18.99/월

일시불 \$599

CWS-AO201W



마이크로 베틀 클렌저

-마이크로 베틀이 모공 수지미 클렌징
수동으로 주유 용량을 조절하는 클렌징 모드
-두꺼운 수축을 차단할 수 있게

추천
플랜

렌탈 \$18.99/월

일시불 \$499

CBD-AM106W



LED 마스크

-수행되는 시간은 15분
(1100nm~1150nm / 670nm~690nm)
-다양한 인체이유시절에 따른 빛의
-이동과 파장으로 피부노화 방지 및 피부 개선

추천
플랜

일시불 \$799

2022 강원도 농수산 특산물

청정 강원도 시골장터 보스톤 지역
Reliable Market 특판전

Korean Gangwondo Boston Food Festival

2022년 6월 16일 (목) ~ 2022년 6월 20일 (월)



피문어, 반건조 가자미, 고등어, 이면수, 보리굴비, 서대, 양념게장, 간장게장, 전복장, 깐다슬기, 황태깍질부각, 통황태, 두절 새우, 구절 노가리, 햇곰창김, 군산 외장아찌, 냉동송이, 전통 메주, 향이 살아있는 생더덕 무침과 더덕된장, 고추장, 옹심이, 인절미, 가래떡, 메밀 식혜, 농협 잡곡류, 직접搾 참기름과 들기름, 다양한 젓갈류등 산지 직송 강원도 식재료로 만든 반찬 200품목의 강원도의 맛을 느껴 보세요.

Experience the Finest Taste of the Gangwon Province Products.

행사장소 : Reliable Market, 45 Union Square, Somerville, MA

문의 : 917 566 8282, 917 577 3018

협찬 : 시골장터,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강원무역, Reliable Market

매사추세츠한인회



매사추세츠 한인회관
재산관리위원회 후원



매사추세츠 한인회관으로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6월 4일 (토)
오전 11시 ~ 오후 2시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매사추세츠 교민여러분을 위한 공간 입니다. ”

한인회관이 있기까지 후원하고 함께 했던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인회관 건립 후원자 명단 현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한인회의 활동상황을 전시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설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앞마당 과 주차장에 스낵, 과일, 커피, 음료를 준비 했습니다.

기념품을 받아가세요..

미리알아보기 : 서영애 회장 978-807-1622
e-mail : masskorean2021@gmail.com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